

건강 칼럼

환절기에 심해지는 비염과 천식

올 여름은 유난히 덥고 쉼...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김관일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교수

인 기도 수축을 자주 일어나게 만들어 천식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발작 정도도 빈번하게 만든다.

을 자극해 방어기능을 약화시키게 된다. 외부 공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코 점막의 기능 이상은 비염 증상을 악화시킨다.

좋다.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수시로 마셔주고, 외부와의 온도 차를 줄이기 위해 얇은 옷을 준비해서 입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환절기마다 심해지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주 증상인 질환으로, 가을의 차고 건조한 기후는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기 쉽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발사대 떠나는 일본 H2A 47호 로켓



7일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무인 탐사선 '슬림'과 천문위성 '쿠리즈'를 탑재한 H2A 47호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집중 호우 동반 온대성 저기압으로 파괴된 자동차들



6일(현지시간)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 호카 살리스를 강타한 온대성 저기압으로 홍수가 발생해 자동차들이 파괴돼 있다.

사설

남원 수지초 개교 100주년

남원 수지초등학교가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벌였다. 지난 7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중국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대만 문화 체험을 지원했다.

는 취지로 해외 탐방의 기회를 마련했다. 수지면발전협의회는 앞으로도 격년제로 문화 체험 행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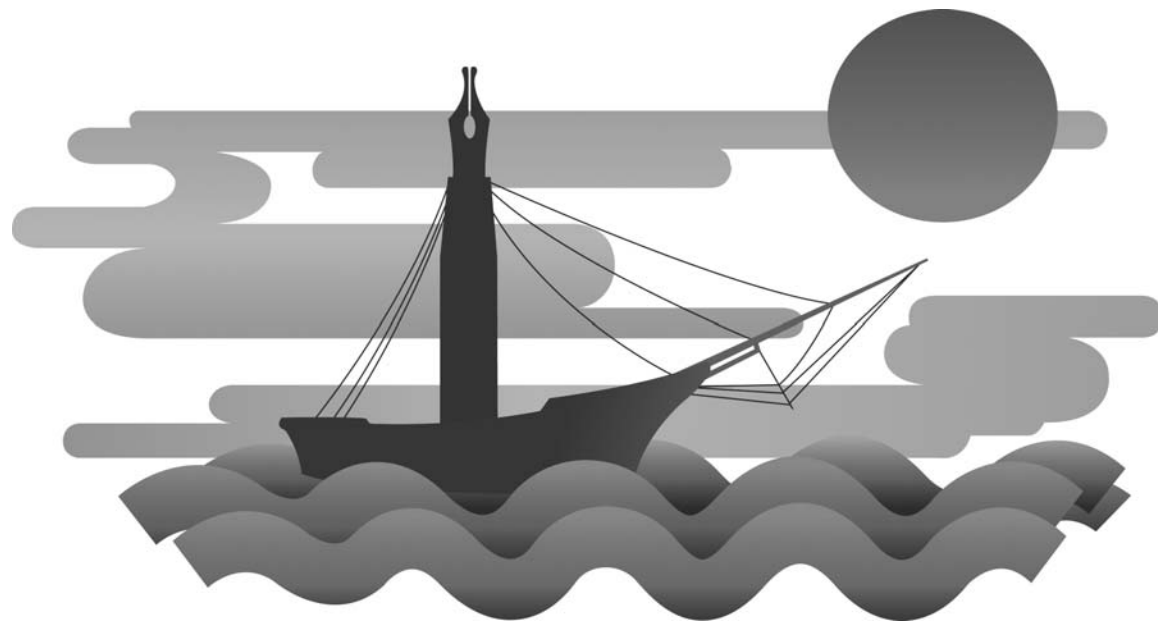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망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망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통과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우려마저 있다.

심 특례를 포함한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부처 실무에 나선 상황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